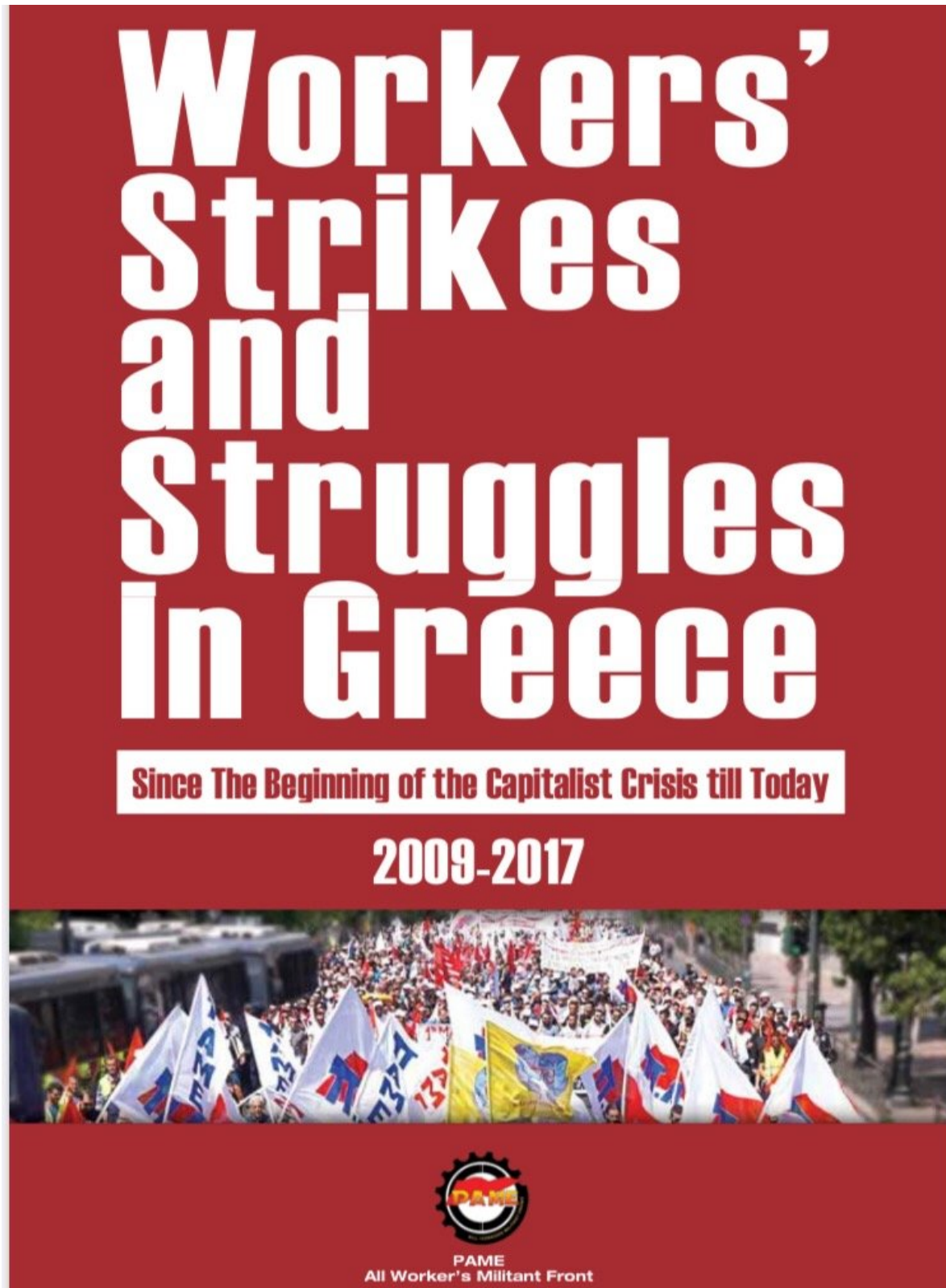


전노동자투쟁전선(PAME)에서 발간한 간행물 2선

Lmao

※ 전노동자투쟁전선(PAME, 빠메)는 계급협조주의로 일관했던 -그리스노총(GSEE) 등- 여타 노동조합들과 달리 1999년 창립 이래 파업 등에 항상 선두에 섰던 노동조합으로, 맑스-레닌주의 정당인 그리스공산당(KKE)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음. 일전에 곁에 한번 소개한 적 있는데, <https://m.dcinside.com/board/kpd/29333> 링크를 참고바람.



그리스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 자본주의 위기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09-2017

: 총파업, 팔레스타인/쿠바/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주의적 행보, 농민조직과의 연대를 비롯해 2009-17년간 펼친 활동경과를 다룬 문서. 09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의 대(對)서방 경제식민화에 반대를 표하며, 시리자와 PASOK의 친자본 정책에 대립각을 명확히 하고 있음. 전체 176페이지로 2018년 9월 그리스어판과 2019년 영문판으로 발간됨.



<노동자 반격> 22호 - 2020.05

: 3.8 국제 여성의 날 집회와 LARGO 사옥 점거, 2월 18일 전국적 총파업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사진에 담고 있으며, 그리스노총(GSEE)의 친기업, 친정부적 행보를 성토했다는게 주된 내용. 연간 1번씩 발행되며, 전노동자투쟁전선 국제관계국 명의로 20년 5월 발간되었음.

PDF 링크(영문판): <https://pamehellas.gr/wp-content/uploads/2020/06/2020ENG.pdf>

- dc official App